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 보도자료

문의	이승환 선임비서관 (이용우 국회의원실)	연락처	010-8784-1878 (lywchosim@naver.com)
----	--------------------------	-----	--

민주, 제조업 산별노조와 잇따라 정책협약 체결 ... 조선 · 자동차 · 철강 일자리 챙긴다

- 민주당 선대위 - 조선업종노조연대 / 금속노조 자동차분과 · 철강분과 각 정책협약식
- 5월 28일(수) 10시 30분 /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다단계 하청구조 문제 해소, 노사간 중대재해 예방대책 협의 등 추진
- 민주 “제조업은 지역발전의 핵심 ... 제조노동자 처우 개선하고, 산재 예방해야”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위원장 김주영 · 최철호 · 김영훈)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조선업종노조연대(8개 노조), 금속노조 자동차분과, 금속노조 철강분과와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의 김주영 본부장, 김영훈 본부장, 이용우 부분부장, 신동호 노동희망실천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세 협약서에는 ▲조선 · 자동차 · 철강 미래 경쟁력 확보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 ▲공급망 선순환구조 구축 및 노동조건 개선 ▲노사간 산업안전보건 협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협약을 체결한 백호선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대표는 “조선업 노동자들의 삶은 오히

려 후퇴하는 부분이 많다” 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고 호소했다. 김병조 공동대표도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노사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 고 말했다.

금속노조 자동차분과 서쌍용 부위원장은 “자동차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안정되는데, 한국은 전기차 진입이 이미 늦어서 우려가 많다” 며 “특히 자동차 중견3사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을 해소해 달라” 고 당부했다.

금속노조 철강분과 박상만 부위원장도 “철강산업도 미국 관세, 국내 건설경기 부진,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로 힘든 업종” 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마저 후퇴했다. 민주당에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힘써 달라” 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본부장은 “제조업이 무너지면 도시가 무너진다” 며 “지역발전을 위해 서라도 제조업 노동자들이 사용자들과 현안을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주영 노동본부장도 “각 조합과 민주당이 소통해서 관세 등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나가자” 고 답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용우 노동본부 부본부장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 3년의 후과” 라며 “산재예방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계속 힘을 합쳐 나가겠다” 고 협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끝)

[붙임 1. 2. 3. 정책협약서]

[붙임 4. 협약식 현장사진]

붙임 1

내란세력 척결, 조선업 노동자 요구 실현을 위한 조선노연 -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서

한국의 조선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가오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내란세력 척결과 조선업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하며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조선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추 산업으로, 앞으로도 한국 사회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조선산업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2. 조선산업이 호황을 맞이한 지금, 원하청 이중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며, 원청과 하청 간의 공정한 계약 체계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3. 중형조선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 특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조선업 공급망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업 노동자 보호 육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2025년 5월 28일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의장 김 병 조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의장 백 호 선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본부장 김 영 훈

21대 대선

올바른 자동차 산업·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금속노동조합-더불어민주당

자동차산업 정책협약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상호 협약한다.

1.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차의 국내 생산 유지와 국내산 부품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다각적인 미래차 전환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3. 공정한 원·하청 관계 확립을 위해, 비대칭적 권한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임의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하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4.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이 준수되도록 노력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과 자동차 산업의 수평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협력한다.
5. 정부 지원 정책의 수혜 기업에 대해 정규직 직접고용을 권고하고 불법파견 및 노동조합 탄압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도록 협력한다.

2025. 5. 28.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 창 열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본부장 김 주 영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본부장 김 영 훈

21대 대선

전국금속노동조합 - 더불어민주당

철강산업 정책 협약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철강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공공적 책임을 인식하여 노동자 권리 보장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상호 협약한다.

1. 철강산업의 공동화 방지,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상호 협력한다.
2. 철강산업의 공급망 생태계 구축, 정의로운 산업 전환, 안전과 고용 등 노동조건 개선 등의 개선에 상호 노력한다.
3.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철강산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고 자회사·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며, 정규직, 자회사, 비정규직, 하청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조를 마련한다.
4.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인 철강사업장의 중대재해 특성에 따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논의를 관련 노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원하청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5. 철강 기업의 해외 투자 시 국내 생산기지 축소 및 인력 감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한다.
6.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2025. 5. 28.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 창 열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본부장 김 주 영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본부장 김 영 훈

붙임 4

